

교계 복지관 노인의 날 행사 '다채'

일산·은평·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노인공경을 마음속에 되새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 '노인의 날'이다.

유엔은 세계 노인의 날로 10월 1일을 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하루 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됐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9월 25일부터 불교계 복지관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10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관 야외무대에서 은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노래 자랑 및 축하공연을 펼친다. (02)385-1351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0월 5일 오후 1시 개관 9주년과 노인의 날을 맞아 '9988 해피투게더'를 실시한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와 모범어르신 시상, 초청공연, 가요제 등이 마련되며 어르신들에게는 무료점심식사가 제공된다. (02)466-6242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영운)은 10월 10일 지역사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 간 상호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 천태자비 시니어樂 축제'를 실시한다. 지역 노인과 주민,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여하는 이날 행사에는 길놀이 등 식전행사와 무료공연, 문화공연 등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02)999-9179

서울 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은 9월 25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서초어르신 열린잔치를 진행했다. 복지관은 노인의 날을 기념해 모범노인표창식과 특별초청공연, 연예인 특별공연 및 어르신 문화공연 등을 개최했다. 또한 9월 17~21일 서초구청 서초플라자에서 서예, 문인화, 수채화, 공예 등 어르신 작품전시회를 마련했다.

경기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은 10월 10일 오전 10시 전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및 호수공원 일대에서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제3회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고 문학 작품을 공모한다. (031)919-8677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9월 25일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위한 국악콘서트 '헌화(獻花), 너에게 꽃을 주다'를 열었다. 국악콘서트를 진행한 우도농악보존회는 무형문화재 제17호로 판소리, 판소리, 민요, 가야금 병창, 창극, 한량무 등 다양한 국악으로 구성된 공연을 선보여 어르신들에게 신명나고 뜻 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9월 27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삼 대한노인회장 등을 비롯



제16회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축하공연 및 어르신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교계 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한 어르신 위문공연 모습

한 어르신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행사, 2부 축하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행사에는 '노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홍보동영상 상영되고 유공자 포상식, 평양통일예술단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홀몸노인 및 경로당을 방문해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가수 이무송·배우 박진영 종로복지관 방문

어르신 600명에게 식사 대접



가수 이무송과 배우 박진영(사진 오른쪽)이 복지관 이용 어르신 600명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대접했다.

가수 겸 사업가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무송 대표와 배우 박진영이 9월 24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

이날 이무송씨와 바로연 임직원 10여명, 배우 박진영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 600명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대접했다. 바로연 임직원은 복지관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김정숙 경기민요국악원장을 초청해 흥겨운 민요 한마당을 벌였다.

이무송 바로연 대표는 "어르신들이 지난해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다. 바로연에서 많지는 않지만

작은 정성을 모아 점심식사와 간소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이 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최근 김치 사업을 시작한 박진영도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해 "오랜만에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다. 요즘 사업한다고 정신없고 좀 쳐져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하시게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다시 힘이 솟는다"며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종말이 김치도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3000만원 장학금 보시

배춘희 할머니, 중앙승가대에 기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중앙승가대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나눔의 집 배춘희(89) 할머니는 9월 26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승)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 중앙승가대학교에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배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아껴 모은 돈이다.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배 할머니는 19살 때부터 중국 만주에서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으며 광복 이후 중국과 일본 생활을 거쳐 1981년 귀국해 1997년부터 나눔의 집에 살고 있다.

배 할머니는 노환으로 지난해 가을 이후 수요일마다 나가시 못하고 와병 중이다. 하지만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아 이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기증식에 참여했다.

배춘희 할머니는 "내 꿈이 스님이 되는 것이었다. 못다 이룬 내 꿈을 대신해 스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은 돈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중앙승가대학교 교무처장 미산 스님은 "할머니께서 주신 귀한 돈을 감사하게 잘 쓰



나눔의 집 배춘희 할머니(사진 오른쪽서 두번째)는 9월 26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중앙승가대에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겠습니다"며 "좋은 인연이 되어 늘 건강하기를 기원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할머니의 마음이 학인스님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금전달식 이후 배춘희 할머니는 학인스님들을 만나고 강의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전생에 내 고향을 느낀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인 것 같다. 꿈에 왔다 가는 기분이다"라며 감격했다. 이나는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

동화사, 화계사 신도 봉사활동 다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이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개최해 불교계 자원봉사조직의 체계적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개최하는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으로 2004년 시작된 이후 80여 곳의 사찰 및 신행단체가 교육에 참여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중환 사무국장과 이승만 차장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불교계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교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이념'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등 강의를 통해 불교계 자원봉사자단의 조직화와 체계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 9일 대구 동화사에서 150여 명을 대상으로, 15일에는 서울 화계사에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동화사 자원봉사단은 9일 교육을 마친 후 '조계종자원봉사단 지회'로 공식 등록하며 불교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나는 기자



9월 15일 서울 화계사에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받았다.

또한 화계사 봉사교육에 참가한 봉사단원들도 선서문 낭독을 통해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찰 신도조직을 체계적 자원봉사 조직으로 전환한다면 사찰이 지역사회와 서로 공존하는 사회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며 "사찰 내 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발달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의 체계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찰에게 무료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02)723-5101

중립종합사회복지관 개소 후 첫 행사

'어르신 위한 효사랑 나눔잔치' 개최



동국대 정각원장 범타 스님이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독거어르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한가위를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다.

중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과 한화생명 강북지역본부(본부장 윤병철) 임직원들은 9월 26일 중립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효사랑 나눔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복지관 종사자와 한화생명 임직원들은 독거어르신 100분에게 식사를 대접했으며 '동행 연우회 봉사단'이 어르신 위문공연을 펼쳤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운영지원사

찰인 동국대 정각원장 범타 스님, 담소 스님(마음연구소장), 김경태 원장(신당데이케어센터)이 참석했다. 범타 스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모두 어르신들 덕분이다. 복지관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용갑 중립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오늘 행사는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을 처음으로 모신 뜻 깊은 행사다. 앞으로 중립동 지역 복지를 위해 열심히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02)362-3348 이나는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10월 중

◆개강일시 : 2012년 10월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원본은 초종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산사랑! 가족사랑!"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가족 산행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 박현성)에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골드윈코리아가 후원하는 가족사랑 프로그램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가족 산행』 2012년도 3차 및 4차 산행을 오는 10월13일(둘째주 토요일)과 10월 27일(넷째주 토요일)에 각각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2년 10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 참가대상
서울시 거주 초·중·고·고 5~6학년(10명) 및 그 부모 / 서울시 거주 중·고·고(10명) 및 그 부모
• 맞벌이 가족으로써 평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가족 우선
• 회기당 참여 가족이 많을 경우 아빠와 함께 참여한 가족 우선

□ 프로그램 개요
목적 : 부모-자녀 관계개선 및 가족화합 및 자연보호
장소 : 3차 : 도봉산 둘레길(18코스) 도봉옛길구간 → 10월 2주차 토요일(10월 13일)
4차 : 북한산 둘레길(21코스) 우이령구간 → 10월 4주차 토요일(10월 27일)

□ 참가자에게는 등산모, 등산스틱, 수건 등을 제공 합니다.

□ 참가 학생에게는 자연보호 자원봉사활동(4시간)증을 발급 합니다.

□ 접수 : 선착순 마감(신청서 작성시 참가 희망 날짜를 정확히 기재 요망)

□ 참가자 준비물
• 산행에 편리한 복장 • 우천시 대비 비옷 및 우산 • 점심 도시락
• 진행계획 : 자연보호 캠페인 및 산행, 둘레길 탐방(참가비 없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 02)733-5138, 735-8165
• 참가신청은 이메일 yeba@chol.com 또는 팩스 02)722-6623 으로 보내 주세요.
•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www.yeba.or.kr 에 올려 놓았습니다.

주 관 : 청소년교화연합회, 주 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후 원 : 골드윈코리아(노스페이스)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주관하는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가족산행" 프로그램은 골드윈코리아(노스페이스)가 후원 합니다.